

신약성서와 하나님

장 동 수

〈신약학 · 교수〉

dschang@kbtus.ac.kr

I. 서 론

볼트만(Rudolf Bultmann)의 “바울의 신학은 그의 인간론으로 가장 적절하게 논술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¹⁾ 쿨만(Oscar Cullmann)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순서(“그리스도-하나님-성령”)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 신학은 실제로 거의 전적으로 기독교론”이라는 주장이 흥미하던 시절,²⁾ 예일

1) Rudolf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K. Grobe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55)(1949년: 독어원저), I: 191(“Paul's theology can best be treated as his doctrine of man”); 이렇게 바울의 신학을 인간학으로 축소시킨 볼트만의 시도에 대한 기독교론적 관점의 적절한 비평은, Joseph A. Fitzmyer, *Paul and His Theology: A Brief Sketch* (Englewood: Prentice-Hall, 1989), 16-8을 참조.

2) Oscar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Shirley C. Guthrie and Charles A. M. Hall (London: SCM Press, 1959, 1983), 2-3(“early Christian theology is in reality almost exclusively Christology”). 하지만 21세기 초에 독일 할레(Halle) 대학교

(Yale)의 신약학자 달(Nils Alstrup Dahl)은 “한세대 이상 신약 ‘신학 (theo-logy = 하나님 학)’의 학자들 사이에서 기독교론, 교회론, 종말론 등에 대한 논의는 왕성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무시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선지자적으로 지적하였다.³⁾ 이러한 현상은 소위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래드(G. E. Ladd)의 신약 신학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⁴⁾ 특히 바울 신학에서 베커(J. Christiann Beker)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⁵⁾ 샌더스(E. P. Sanders)는 “(바울)에게서 우

의 신약학 교수 슈넬레(Udo Schnelle)는,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 신학이 기독교론으로 대치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예수의 정체성과 위치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으로 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가 기독교론의 기초이다”라고 확언한다: Udo Schnelle, *Apostle Paul: His Life and Theology*, trans. M. Eugene Bor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395.

- 3) Nils Alstrup Dahl, “The Neglected Factor in New Testament Theology,” in Nils Alstrup Dahl, *Jesus The Christ: The Historical Origins of Christological Doctr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53-63(이 논문은 원래 1975년 *Reflections* 75 (1975): 5-8에 발표되었음). 본고에서는 154쪽의 “For more than a generation, the majority of New Testament scholars have not only eliminated direct references to God from their works but have also neglected detailed and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statements about God. Whereas a number of major works and monographs deal with the Christology (or ecclesiology, eschatology, etc.) of the New Testament, it is hard to find any comprehensive or penetrating study of the theme “God in the New Testament.”를 요약적으로 번역하였음.
- 4) G. E. Ladd, 『신약성서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5) J. Christiann Beker, *Paul the Apostle: 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1980).

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을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⁶⁾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는 바울의 다마스쿠스 경험의 변화를 준 부분은 그의 기독교론(Christology)이지 그의 신학(theology)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⁷⁾ 구약학자인 차일스(Brevard S. Childs)는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지 않았고, 다만 애초부터 있었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의지의 최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⁸⁾

하지만 달(Dahl)의 선지자적인 논문 이후, 특히 금세기에 들면서 영-미권의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성과 활발한 노력이 감지된다. 그의 호소에 반응한 지난 세기 후반의 목소리 중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신약신학을 구성한 거쓰리(Donald Guthrie)와⁹⁾ 그보다 먼저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역설한 케어드(G. B. Caird)가¹⁰⁾ 대표적이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달의 호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루어진 노력들이 활발한 것은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톰슨(Marianne Meye Thompson)의 신약 전체와¹¹⁾ 요한복음을¹²⁾ 하나

6)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77), 509.

7) Fitzmyer, *Paul and His Theology*, 9.

8)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Philadelphia: Fortress, 1992), 358.

9) Donald Guthrie, 『신약신학』, 정원태, 김근수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70-120, 특히 119-20.

10) G. B. Caird, *New Testament Theology*, ed. L. D. Hurst (Oxford: Clarendon Press, 1994), 31.

11) Marianne Meye Thompson, *The Promise of the Father: Jesus and God in the New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12) Marianne Meye Thompson, *The God of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1).

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약속의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 신약학자들이 구약 학자들과 연합하여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망해본 『잊힌 하나님』(*The Forgotten God*),¹³⁾ 네이레이(Jerome H. Neyrey)의 사회학적인 접근,¹⁴⁾ 거쓰리보다 더 종합적으로 접근한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의 신약신학 교과서,¹⁵⁾ 성서신학 도서관 시리즈(Library of Biblical Theology)의 던(James D. G. Dunn)과¹⁶⁾ 허타도(Larry W. Hurtado)의 연구¹⁷⁾ 등이 있다.

-
- 13) A. Andrew Das and Frank J. Matera, eds., *The Forgotten God: Perspectives in Biblical The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J. Achtemeier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y-fifth Birth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본 기념논문집은 달의 논문 발표를 직접 들었던 이들이 편집하고 구약과 신약학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들여다본 결과물이다.
- 14) Jerome H. Neyrey, *Render to God: New Testament Understandings of the Div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15) 슈라이너는 2008년 내놓은 자신의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Magnifying God in Christ)의 한 장(chapter)에서 “신약신학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역설하고 신약신학을 그 구도 속에서 기술한다: Thomas R. Schreiner, 『신약신학』, 임범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특히 109-55. 그는 동일한 구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서신학을 내기도 하였다: Thomas R.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16) 던은 신약의 구약과의 연관성을 환기시키면서 “신약의 성서신학의 핵심주제(The Central Subject Matter of A Biblical Theology of the NT)”는 하나님이라고 역설하고 그 구도 속에서 기독교론, 구원론 등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James D. G. Dunn, *New Testament Theology: An Introduction*. Library of Bibl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특히 38-69.
- 17) Larry W. Hurtado, *God in New Testament Theology*, Library of Bibl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특히 1-7. 허타도는 던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달의 한탄에 대한 반성과 신약학계의 노력을 요약하고 나서, 삼위일체(Trinity)의 구도 속에서 신약의

이러한 저술들에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¹⁸⁾ 더불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중심성에 대한 강조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아직 뚜렷한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달이 언급한 선지자적인 음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신약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반성과 개선책을 제시함에 있다. 먼저 신약 신학에서 하나님이 무시된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반성과 더불어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신약 연구에서 하나님이 무시된 원인

달은 신약신학 및 기독교 신학 일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뚜렷한 그리스도 중심성(pronounced Christo-centricity)이며, 둘째는 신약의 하나님 언급의 간접성(indirectness)이다.¹⁹⁾ 두 번째 이유를 더 부연하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및 자신들의 동시대 유대교의 하나님 개념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신약에는 하나님이 주제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여타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을 논한다.

18) 예를 들면, G. K.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동일저자의 *Handbook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xegesis and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등.

19) Dahl, "The Neglected Factor in New Testament Theology," 155-6.

1.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성

신약 스물일곱 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신약의 첫 책(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라는 표제로 시작되고 마지막 책(요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Ἀποκάλυψ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는 표제로 시작된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열방에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이고, 나머지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들이다. 이렇듯 신약은 하나님보다는 기독교인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기독교 논쟁 때문이기도 한데, 그 흔적들은 신약의 신앙고백, 사본들의 이문(variants), 그리고 신경(creed) 등에서 분명하게 감지된다.

1) 신약의 신앙고백

신약은 예수의 인성에서 신성으로 전진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논하면서, 그랜트(Frederick C. Grant)는 “신약은, 이론(theory)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의 인성에서 신성으로 전진하지 예수의 신성에서 인성으로 역으로 후퇴하거나 하강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²⁰⁾ 우선 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고백에서 발견된다. 나다나엘의 고백,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요 1:49- Ῥαββί, σὺ εἶ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σὺ βασιλεὺς εἶ τοῦ Ἰσραὴλ), 베드로의 고백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8-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τοῦ ζῶντος)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요 6:69-σὺ εἶ ὁ ἅγιος τοῦ θεοῦ), 그리고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 20:28- Ὁ

20) Frederick C. Grant,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특히, 138-43, 인용문은 139.

κύριός μου καὶ ὁ θεός μου) 등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쉼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나님은 하나이신 주님이시다”(신 6:4하: MT, $\text{יְהוָה יְהוָה יְהוָה אֱלֹהֵינוּ} = \text{LXX, ἄκουε Ἰσραὴλ κύριος ὁ θεός ἡμῶν κύριος εἷς ἐστίν}$)를 연상시키며, 이 신앙고백 모두는 예수의 신성을 분명히 한다.

신약에는 삼위(Trinity)가 나란히 나타나는 진술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예수의 신성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ἡ ἀγάπη τοῦ θεοῦ καὶ ἡ κοινωνία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에베소서 4장 4-6절(비교. 고전 12:4-5)에서는 “... 성령도 하나요, ... 주도 하나요, ...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요”(… ἐν πνεύμα, … εἷς κύριος, … εἷς θεός καὶ πατήρ πάντων) 등에서 감지되는 점은 예수의 신성이 전제되었다는 점과 삼위의 위치가 순환되는 모습이다. 쿨만이 신약에는 기독교론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찾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자리에 오기도 하고 마태복음(28:19)과 에베소서(4:4-6) 및 고린도 전서(12:4-5)에서는 중앙에 오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경우에 삼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요한일서 기자도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요일 5:20-“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 ἐν τῷ υἱῷ αὐτοῦ Ἰησοῦ Χριστῷ. οὗτός ἐστιν ὁ ἀληθινός θεός καὶ ζωὴ αἰώνιος”). 야고보 기자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동시에 주님”으로 고백한다(약 1:1-Ἰάκωβος θεοῦ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οῦλος).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된 히브리인 바울은 주요서신(롬 9:5-“그리스도 = 하나님: ἕ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ός εὐλογητό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과 목회서신(딤후 2:13-“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
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였다.²¹⁾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두 위를 독립적으로(고전 8:6- “한 하나님 아버지 ... 한 주님 예수 그리스
도”: εἷς θεὸς ὁ πατὴρ ... εἷς κύριος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혹은 아버지-아들의
위치로(고후 1:3/벧전 1:3-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ὁ θεὸς καὶ πατὴρ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선언한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본에 나타난 이문들

교회사 초기부터 발생한 기독교론 논쟁(예수의 신성/인성 논쟁)은 신약의
본문 전승과정에서 발생한 사본의 이문들에서도 감지된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마태복음 1장 16절(후반절의 주어 및 동사와 연관된 이문): 마가
복음 1장 1절(말미에 υἱοῦ θεοῦ이라는 어구의 생략과 삽입); 요한복음 1장
18절(μονογενῆς θεός인가? 혹은 μονογενῆς υἱός인가?); 사도행전 20장 28
절(τὴν ἐκκλησίαν τοῦ θεοῦ/κυριοῦ/θεοῦ καὶ κυριοῦ와 αἵματος τοῦ ἰδίου/
ἰδίου αἵματος/αἵματος αὐτοῦ); 디모테전서 3장 16절(이 찬양시의 첫 단어
가 관계대명사-ός 인가? 혹은 “하나님-θεός”인가?); 히브리서 2장 9절(“하
나님의 은혜로- χάριτι θεοῦ”인가? 혹은 “하나님 없이-χωρὶς θεοῦ”인가?) 등
이 있는데, 이 모두는 예수의 신성 혹은 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이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사본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이

21) 이 사안에 대하여, George Carraway, *Christ Is God Over All: Romans 9:5 in the Context of Romans 9-11* (London: Bloomsbury, 2013)과 장동수, “목회서신의 기독교론,” 『복음과 실천』, 45집 (2010년 봄): 61-84 등을 참조.

22) Bart D. Ehrman,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The Effect of Early Christological Controversies 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각각 54-9(마 1:16); 72-5(막 1:1); 78-82과 265-6(요 1:18); 87-8과

문들은 교리논쟁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

3) 신경의 발전

다음에 예시된 가장 일반적인 신경(4-6세기)을 보면 열두 아이템 중에서 기독교론이 절반(여섯)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소홀히 여겨졌다.²³⁾ 다만 위로를 삼는다면 기독교론 부분에 등장하는 수식어구들이 “그(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υἰὸν αὐτοῦ τὸν μονογενῆ)”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θεοῦ πατρὸς παντοδυνάμου) 우편” 등의 어구에서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뿐이다. 이는 아들이라는 어휘 속에 관계(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정체성(신성의 동등성)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비교. 요 5:17-18; 10:30):²⁴⁾

성부 Πιστεύω εἰς ΘΕΟΝ ΠΑΤΕΡΑ, παντοκράτορα, ποιητὴν οὐρανοῦ καὶ γῆς.

성자 Καὶ (εἰς) ἸΗΣΟΥΝ ΧΡΙΣΤΟΝ, υἰὸν αὐτοῦ τὸν μονογενῆ,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τὸν συλληφθέντα 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γεννηθέντα ἐκ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ένου, παθόντα ἐπὶ Ποντίου Πιλάτου, σταυρωθέντα, θανόντα, καὶ ταφέντα, κατελθόντα εἰς τὰ κατώτατα,²⁵⁾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ἀναστάντα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

264(행 20:28); 77-8(딤후 3:16); 146-50(히 2:7) 등을 참조.

2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40-1(신경들의 비교차트), 45-6(그리스어 원문).

24) William Barclay, *The Plain Man Looks at the Apostles' Creed* (Glasgow: Collins, 1967), 459-65, 특히 61.

25) 이 어구는 현재 사용 중인 신경에서는 빠짐.

ἀνελθόντα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ὺς, καθεζόμενοι ἐν δεξιᾷ θεοῦ πατρὸς
παντοδυνάμου,

ἐκεῖθεν ἐρχόμενοι κρίναι ζῶντας καὶ νεκρούς.

성령 Πιστεύω εἰς τὸ ΠΝΕΥΜΑ ΤΟ ἍΓΙΟΝ,
교회 ἁγίαν καθ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ἁγίων κοινωνίαν,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σακὸς ἀνάστασιν,
 ζῶην αἰώνιον.
 Ἄμήν.

아리우스 논쟁의 와중에 채택된 동방교회의 신경인 니케아(325)-콘스탄티노플(381) 신경에서는 성령 부(ἐκ τοῦ πατρὸς =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어구만 나오고 filioque = “그리고 아들로 부터”라는 어구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와 더불어 성자 부(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괄목할 만하게 팽창되었다:26)

성부 Πιστεύομεν εἰς ἕνα ΘΕΟΝ ΠΑΤΕΡΑ παντοκράτορα, ποιητὴν οὐρανοῦ καὶ γῆς,
 ὀρατῶν τε πάντων καὶ ἀοράτων.

성자 Καὶ εἰς ἕνα κύριον ἸΗΣΟΥΝ ΧΡΙΣΤΟ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τὸν μονογενῆ,
 τὸν ἐκ τοῦ πατρὸς γεννηθέντα πρὸ πάντων τῶν αἰώνων, φῶς ἐκ
 φωτός,
 θεὸν ἀληθινὸν ἐκ θεοῦ ἀληθινοῦ, γεννηθέντα, οὐ ποιηθέντα,
 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ί·
 δι' οὗ τὰ πάντα ἐγένετο· τὸν δι' ἡμᾶς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καὶ διὰ τὴν
 ἡμετέραν σωτηρίαν κατελθόντα ἐκ τῶν οὐρανῶν καὶ σαρκωθέντα
 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ἐκ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ένου καὶ ἐνανθρωπήσαντα,
 σταυρωθέντα τε ὑπὲρ ἡμῶν ἐπὶ Ποντίου Πιλάτου,
 καὶ παθόντα καὶ ταφέντα, καὶ ἀναστάντα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κατὰ τὰς

26) 참조.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57-8.

γραφάς,

καὶ ἀνελθόντα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ὺς, καὶ καθεζόμενον ἐκ δεξιῶν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πάλιν ἐρχόμενον μετὰ δόξης κρῖναι ζῶντας καὶ ἰκρούς·

οὐ τῆς βασιλείας οὐκ ἔσται τέλος.

성령 Καὶ εἰς τὸ ΠΝΕΥΜΑ ΤΟ ἍΓΙΟΝ, τὸ κύριον, (καὶ) το ζωοποιόν,

τὸ ἐκ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υόμενον,

τὸ σὺν πατρὶ καὶ υἱῷ συνπροσκυνούμενον καὶ συνδοξαζόμενον,

τὸ λαλήσαν διὰ τῶν προφητῶν·

교회 εἰς μίαν, ἁγίαν, καθολικὴν καὶ ἀποστ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ὁμολογοῦμεν ἓν βάπτισμα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προσδοκῶμεν ἀνάστασιν νεκρῶν,

καὶ ζωὴν τοῦ μέλλοντος αἰῶνος.

Ἀμήν.

예를 들면 “...,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분,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태어나신 분이시, 만들어진 분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신 분, ... 우리 인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과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분, ... 그분의 나라는 다함이 없다” 등과 같은 구절들이다.

요약하면 신경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οὐ τῆς βασιλείας)가 되는 점에 있다.²⁷⁾ 그리스도의 신성과/혹은 인성을 부인하는 여러 이론들(Apollinarianism, Nestorianism, Eutychianism 등)을 대항하기 위하여 기독교 단락이 콘스탄티노플 신경보다 더 많이 확장되고 또한 기독교 단락만으로 구성된 칼케돈 신경(451년 10월 22일)에서는 급기야 “...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로부

27) 비교. 계시록 11장 15절(“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공동소유?”)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아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

터”(ἐκ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ένου τῆς θεοτόκου κατα τὴν ἀνθρωπότητα)라는 어구의 출현에까지 이르게 된다.²⁸⁾

그랜트의 설명과 같이,²⁹⁾ 톰슨은 이처럼 “신경적 궤도(creedal trajectory)”는 신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적인 고백의 궤도인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을 관통하고 종말론적인 완성(롬 8:21)을 향하여 가는 “종말론적인 궤도(eschatological trajectory)”에 대응하는 궤도라고 설명해 준다.³⁰⁾ 톰슨은, “종말론적인 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끝이 나지만 “신경적 궤도”는 아들이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되는 데서(니케아신경) 끝이 난다고, 역시 적절히 비평한다.³¹⁾ 그리고 신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자리에서,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가 현대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한탄하는 소리에³²⁾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신경의 하나님 부분 이후에 나오는 내용(성자 부와 성령 부)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통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계시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가 선포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한다.³³⁾

2.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언급의 간접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및 자신들의 동시대 유대교

28) 신경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전문과 몇 가지 각주를 위하여, Schaff, 앞의 책 (1919), 62-5를 참조.

29) Grant,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138-43.

30) Thompson, *The Promise of the Father*, 155-8.

31) Ibid., 156-7.

32) Wolfhart Pannenberg,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n *A New Look at the Apostles' Creed*. ed. Gerhard Rein and trans. David LeFort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9), 14.

33) Ibid., 18.

의 하나님 개념을 당연하게 여겼다.³⁴⁾ 그래서인지 신약에는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였을지언정 그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희박하며 하나님은 대부분 다른 신화적인 주제들의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신약에서 이러한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피한 완곡한 표현(circumlocution)들이다.³⁵⁾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는 그의 이름과 그의 계시 자체가 너무 거룩하게 되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약신학에서 전제가 되거나 신약 자체에서 당연시되기는 하였지만, 교회사에서나 신약의 연구사에서는 하나님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었다.

제3계명(출 20:7; 신 5:11)의 준수를 위하여 혹은 중간기 묵시문학의 영향 때문에³⁶⁾ 사자신명(tetragrammaton, 히브리어의 יהוה)을 발성하기 꺼려하던 당대의 관습을 따랐을 예수의 입에서 발생된 완곡한 표현들은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³⁷⁾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³⁸⁾에서 사용하는 하늘(οἱ οὐρανοί), (나의, 너의, 우리의, 너희의) 아버지(ὁ

34) Grant,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99-125.

35)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trans. D. M. Kay (Edinburgh: T. & T. Clark, 1909), 179-233;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trans. John Bowd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8-14, 63-7, 102.

36)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9, 12-13.

37)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또는 passivum divinum) 혹은 신학적 수동태(theological passive)란 하나님을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자(agent)가 생략된 채 사용되는 수동태를 말한다: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 76.

38) 마태복음(31번)에서 가장 선호되는 용어인데, 다른 곳에서 사용된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와 동일한 어휘이다.

πατήρ),³⁹⁾ 삼인칭 복수(눅 6:38; 12:20 등), 주(ὁ κύριος),⁴⁰⁾ 하늘과 땅의 주(마 11:25, ὁ κύριος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τῆς γῆς), 능력(막 14:62, ἡ δύναμις), 지혜(마 11:19, ἡ σοφία), 이름(마 6:9, τὸ ὄνομα), 나라(막 1:15, ἡ βασιλεία),⁴¹⁾ 사자들(눅 12:8, οἱ ἄγγελοι τοῦ θεοῦ),⁴²⁾ 앞(얼굴)(눅 12:6,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크신 왕(마 5:35, ὁ μέγας βασιλεύς), 지

39) 이 어휘는 마태복음에도 40번 가까이 나오지만, 요한복음(109번)에서 가장 선호되는 어휘이다. 톰슨은 예레미야스의 논의를 평가하며 신약과 요한복음의 이 아버지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61-7; Thompson, *The Promise of the Father*, 21-34; Thompson, *The God of the Gospel of John*, 58-72 등을 참조.

40) κύριος는 신약에서 719번 나오는데, 사자신명(四字神名, קַיָּרִי)에 대한 LXX의 번역 용어였다. 구약 본문의 신약에의 인용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를 지칭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600번 가까이). 그 출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더 상세한 설명은, Grant,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130-7; Hans Conzelmann, *An Outline of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John Bowden (New York: Harper & Row, 1969), 82-4; J. A. Fitzmyer, "κύριος, ου, ὁ,"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ed.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Grand Rapids: Eerdmans, 1990), 328-31; Fitzmyer, *Paul and His Theology*, 34-5; Barclay, *The Plain Man Looks at the Apostles' Creed*, 65-9; Bruce J. Harvey, *YHWH ELOHIM: A Survey of Occurrences in the Leningrad Codex and their Corresponding Septuagintal Renderings* (London: T. & T. Clark, 2011) 등을 참조.

41)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는 어구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구로도 볼 수 있다. 참조.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102.

42) 천사들, 앞(얼굴), 거룩한 자, 위로부터 등의 어휘를 내세우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발전된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보인다. Christopher Rowland, *The Open Heaven: A Study of Apocalyptic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78-113; Russell, D. S.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AD 100*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166-9, 235-40 등을 참조.

극히 높으신 분(눅 6:35, ὁ ὑψιστος), 거룩한 자(막 3:29; 마 12:32; 눅 11:13, ἅγιος), 위로부터(요 3:3, 7; 19:11, ἀνωθεν), 분사 구문(막 9:37; 마 10:28; 23:21-2), 동사의 완곡법(막 2:27; 마 11:21, 23; 눅 4:25; 11:30; 막 9:31; 10:30; 마 7:8; 10:41 등) 등이지만, 예 레미야스(Joachim Jeremias)가 지적한 것처럼 가장 선호된 기법은 신 약에서 일백 번 이상 사용된 신적 수동태였다.⁴³⁾ 이 신적 수동태는 복음서 들뿐만 아니라 바울서신과 신약의 다른 책에서도 나타난다.⁴⁴⁾ 신약에 사 용된 또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서 누가(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선호 하는 신적 '데이'(divine δει)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이 중에서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하나님 언급의 간접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완곡 표현 중의 하나로서, 예수의 언사 가운데 100번 정도 감지되고 바울을 위시하여 신 약의 여타 저자들이 사용한, 신적 수동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의 언사 중에서 신적 수동태는 팔복(마 5:4,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 애통하는 자들 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6, χορτασθήσονται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배 불러질 것이요; 7, έλεηθήσονται =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 을 것이요),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마 6:33, ταῦτα πάντα προστεθήσεται

43)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8-14.

44) 장동수, "신적 수동태 구절 소고," 『성경원문연구』, 7호 (2000년 8월): 117-48.

45) 장동수, "신약성서의 신적 δει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31집 (2003년 봄): 33-58; W. Popkes, "δει,"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ed.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Grand Rapids: Eerdmans, 1990), 279-80; Hans Conzelmann, *The Theology of St. Luke*, trans. John Bowden (New York: Harper & Row, 1961), 151-3 등을 참조.

ἡμῖν=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마 7:7-8/눅 8:18, Αἰτεῖτε καὶ δοθήσεται ὑμῖν, κρούετε καὶ ἀνοιγήσεται ὑμῖν=... 주어지고 ... 열릴 것이다; 마 7:1-2, Μὴ κρίνετε, ἵνα μὴ κριθήτε· ... κριθήσεσθε· ...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하여 판단하지 말라 ... 판단 받을 것이다 ... 셈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마 6:9,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서이다), 예수의 선포(막 1:15, Πεπλήρωται ὁ καιρὸς = 때가 차지다), 예수의 일반적인 가르침(막 2:5/눅 5:20/마 12:31-32, ἀφίενταί σου αἱ ἁμαρτίαι=너의 죄들이 사해졌다; 마 10:30/눅 12:7, ὑμῶν δὲ καὶ αἱ τρίχες τῆς κεφαλῆς πᾶσαι ἠριθμημέναι εἰσὶν/ἠρίθμηνται=너희의 머리털들까지도 모두 계수되었다), 심지어는 예수의 가상 칠언(요 19:30, Τετέλεσται=다 이루어졌다) 중에도 나타난다.

바울의 어법에서도 신적 수동태는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의의 계시(롬 1:17/ 3:21,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ἀποκαλύπτεται/πεφανερωται), 창세기 15장 6 절의 인용과 해석(롬 4:3, 9, 22,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과 살아나심(롬 4:24하-25, τὸν ἐγείρατα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ἐκ νεκρῶν, ὃς παρεδό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ἡμῶν καὶ ἠγέρθη διὰ τὴν δικαίωσιν ἡμῶν=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하나님)을, 그(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고전 13:12, τότε δὲ ἐπιγνώσομαι καθὼς καὶ ἐπιγνώσθη=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그대로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을 표현할 때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요한(요 2:22, ἠγέρθη ἐκ νεκρῶν=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을 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수난(롬 4:25)과 부활을 수동태로 표현하기를 더 자주하였다(예를 들면, 고전 15:20, Χριστὸς ἐγήγερται ἐκ νεκρῶν=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셨다; 롬 6:4, ἠγέρθη Χριστὸς ἐκ νεκρῶν

διὰ τῆς δόξης τοῦ πατρός =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셨다 등). 베드로(벧전 1:5/5:1의 ἀποκαλυφθῆναι와 1:7의 εἶρηθῆ = 계시되/발견되)도 히브리서 기자(히 11:2, ἐν ταύτῃ γὰρ ἐμαρτυρήθησαν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 이로써 선진들이 증언을 받았다)도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였다. 신약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된 신적 수동태 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광범위하게 숨겨져 있지만, 이 신적 수동태가 신약 신학의 주제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데까지 활용되지는 못한 감이 든다.

2) 신적 '데이'(divine δεῖ)

신약성서에 무려 102번이나 나오는 비인칭 동사 δεῖ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로 신적 당위성, 명령, 의지, 계획(구약 성경 인용) 혹은 윤리적 당위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서 흔히 신적(divine) δεῖ라 부른다. 때문에 신적 수동태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 신적 δεῖ에서도 하나님 언급의 간접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δεῖ의 신약성서에서의 사용은 불균형적 이어서 누가복음-사도행전에 40번, 바울서신에 25번, 요한복음에 10번,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각각 8번, 마가복음에 6번, 히브리서에 3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셈어에는 δεῖ와 동등한 어휘가 없으므로 이 어휘의 직접적인 배경은 헬라이어(LXX을 통하여, 단 2:28이하의 ἃ δεῖ γενέσθαι. 비교. 계 1:1, 4:1, 22:6의 ἃ δεῖ γενέσθαι = “돼야만 할 일들”)에서 신약성서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어휘 배후에 있는 권위는 운명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인데, 차후에 “신적으로 정해진 운명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어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이 어휘가 사용되면서, 종교적이든 윤리적 이든 하나님의 뜻, 말씀, 명령, 암시된 권위 등에 근거한 것이면, 신적 δεῖ라 부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⁴⁶⁾ 헬라이어로서 이 어휘는 논리적 혹은 과학적

46)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ἃ δεῖ εἰπεῖν)을 표현할 때, 평행 절(막 13:11)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암시하는 신적 수동태, “주어지는 것”(ὁ

필연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윤리적 혹은 종교적 임무(비교. 행 5:29; 살전 4:1; 롬 8:26; 고전 8:2; 딤후전 3:2, 7, 15; 눅 13:14, 16 등)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예수의 수난과 부활(막 8:31; 9:11-13; 14:31; 마 26:54; 눅 24:25-27)과 관련하여 구약의 암시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틀에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요 3:3, 5, 7, 30; 4:4[ἐκεῖ], 20, 24; 9:4).⁴⁷⁾

이 신적 δέ의 빈도수나 사용된 목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누가는 구원사의⁴⁸⁾ 큰 틀을 이 용어로 표현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의 죽음, 부활, 승귀에서 완성된다는 언급(눅 24:25-27)과 더불어, δέ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틀을 형성하는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의 전 생애 운명(예수의 생애- 눅 2:49; 4:43; 9:22; 13:33; 17:25; 19:5; 22:37; 24:7, 26, 44; 바울의 생애-행 9:6, 16; 19:21; 23:11; 27:24, 26)과 개별 사건들(눅 12:12; 행 10:6; 16:30)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누가문서의 40개 구절에 사용된 δέ의 용례들은, 율법 혹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 윤리적 당위성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예수의 사역, 구원론적인 언사, 그리고 종말론적인 언급 등을 포함하여 구속사의 중요한 개념적 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제자

ὁὖν ὁδοῦ)을 사용한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δέ를 사용하여 신적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

47) Popkes, W. "δέ."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1. Edited by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Grand Rapids: Eerdmans, 1990.

48) John T. Carroll, "The God of Israel and the Salvation of the Nations: The Gospel of Luke and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Forgotten God*, 91-106; Udo Schnell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M. Eugene Bor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469-70 등을 참조 바람.

(바울의 예)의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미치는 신적 필연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논의한 신적 수동태보다는 약하지만, 신약의 $\delta\epsilon\iota$ 구문을 숨어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3) 칠십인 역(LXX)의 영향

앞 단락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의 신성이 급속하게 인정된 이면에는 사자신명($\pi\pi\pi$)을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로 번역하여 신약에 유입시킨 LXX의 영향을 들 수 있다. LXX은 신약의 저자들에게 어휘와 구약 본문만 아니라 신학까지도 제공하였다.⁴⁹⁾ 그 대표적인 예로 방금 언급한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예수의 동정녀 탄생(사 7:14/마 1:23, LXX의 $\eta\ \mu\alpha\tau\epsilon\rho\epsilon\upsilon\sigma$),⁵⁰⁾ 하박국서 2장 3-4절의 LXX은 바울(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과 히브리서 기자(히 10:37-38)에게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⁵¹⁾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지적처럼, 따지고 보면 신적 수동태나⁵²⁾ 신적 ‘데이’(divine $\delta\epsilon\iota$)도⁵³⁾ LXX을 통하여 신약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LXX은 신약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대한 공이 있다고 여겨진다.

49) Timothy Michael Law, *When God Spoke Greek: The Septuagint and the Making of the Christian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95-8; R. Timothy McLay, *The Use of the Septuagint in New Testament Research* (Grand Rapids: Eerdmans, 2003), 169-70 등을 참조.

50) 이사야서 7장 14절의 $\pi\alpha\iota\sigma\upsilon\lambda\lambda\eta$ 는 그냥 젊은 여자인데(비교. 갈 4:4의 $\gamma\epsilon\upsilon\mu\epsilon\mu\epsilon\upsilon\sigma$ $\epsilon\kappa$ $\gamma\upsilon\upsilon\upsilon\alpha\iota\kappa\acute{o}\varsigma$), LXX은 처녀($\eta\ \mu\alpha\tau\epsilon\rho\epsilon\upsilon\sigma$)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정착되었다.

51) 장동수, “신약성서에서의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인용과 해석,” 『복음과 실천』, 57집 (2016년 봄): 50-9.

52)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12.

53) 각주 45번 참조.

Ⅲ. 신약 연구에서 하나님 강조를 위한 제안

본 장의 목적을 이루고자 결론을 간단히 맺는다면, 앞 장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역으로 적용하면 될 듯하다. 가장 단순한 예로, 앞 장에서 설명한 요인들을 역으로 살펴보면 신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위상이 보인다. 즉, 신적 수동태와 신적 ‘데이’(divine $\delta\epsilon\iota$)를 뒤집어 보면 숨어있는 주체, 즉 하나님의 활동이 광대하게 보인다. 이렇게 신약 연구에서 하나님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와 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선, 간접적으로 암시되거나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을 주체로 내세울 수 있다. 완곡한 표현(circumlocution)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광대하고 주도적인 활동이 보인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ὁ Χριστός, the anointed)라는 어휘도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암시되었다.⁵⁴⁾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적 수동태나 신적 $\delta\epsilon\iota$ 를 뒤집으면,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위로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며 공활히 여기시며(마 5:4, 6, 7), 모든 것을 더해주는 분이시며(마 6:33),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마 7:7-8)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막 2:5) 머리털도 세시고(마 10:30)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고전 13:12), 또한 인류를 심판할 분이시다(마 7:1-2).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막 1:15; 갈 4:4),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아들을 통하여 완성한 분이시며(요 19:30), 그 아들을 내어준 분(롬 4:25; 8:32)이신 동시에 살리신 분(요 2:22; 롬 4:25; 6:4; 고전 15:20)이시다. 그러므로 바클레이가 말했듯이,⁵⁵⁾ “하나님은 예수의 성

54) Leander E. Keck, “Toward the Renewal of New Testament Theology,” *New Testament Studies*, 32 (1986): 363.

55) William Barclay, 『바울의 인간과 사상』, 서기산 역 (서울: 교문사, 1974), 45-6.

육신 사건(갈 4:4), 십자가 사건(롬 4:25; 8:32), 부활 사건(갈 1:1/롬 4:24, 능동태 분사, θεοῦ πατρὸς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나 롬 4:25, 6:4; 고전 15:20; 요 2:22 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며 동사는 수동태로 표현된 경우가 더 많음), 모두의 배후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든 행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구원(요 3:16)을 포함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신약성서를 본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θεός, 1,314번) 아버지(πατήρ, 415번)가 각각 주님(κύριος, 718번)과 아들(υἱός, 375번)보다 더 많이 신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시각을 돌릴 수 있다. 더구나 κύριος는 원래 LXX에서 하나님(κύριος)을 지칭하는 어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비록 아들의 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 어휘가 아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베드로 등 사도들이 언급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후 1:3; 벰전 1:3, ὁ θεός καὶ πατήρ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는 선언을 깊이 있게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장 1절(ἦν ἔδωκεν αὐτῷ ὁ θεός) 갈라디아서 1장 1절(θεοῦ πατρὸς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과 4장 4절(ἐξαπέστειλεν ὁ θεός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γενόμενον ἐκ γυναίκος) 등에서 하나님이 주어, 아들이 목적으로 등장한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3:16; 갈 4:4)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갈 1:1)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계 1:1)는 선언 등과 같이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구절들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마땅하다.

3. 그러므로 소위 서사 신학(Narrative Theology)에서처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신약의 각 책, 신약 전체(신약신학), 구약과 신약(성서신학)을 관통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진부한 언급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ός τὸν κόσμον,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성서신학 혹은 조직신학(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창조론 등)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세대의 역사신학자의 자전적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A Grace Revealed, 2012)에 등장하는 신학에 대한 정의에서나,⁵⁶⁾ 『잊힌 하나님』(The Forgotten God)의 신구약 각 책에 대한 하나님 탐구, 특히 요한복음과⁵⁷⁾ 마가복음 탐구⁵⁸⁾ 등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독교론, 하나님의 성령론, 하나님의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교회론) 등으로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이지만,⁵⁹⁾ 이러한 각론적인 논의들이 그 분야만 독립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4.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론을 논할 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의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승귀 등에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경궤도 즉 기독교론적 궤도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등의 어구에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신약신학의 논의에서 기독교론과 교회 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강조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모성 강조(갈게돈 신경에서부터 출현한 ἡ θεοτόκος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하나님의 부성(fatherhood of God)을 강조하는 원 위치로 와야 한다.

56) Gerald Sittser, 『하나님의 은혜』, 윤종석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143-67, 특히 143-4; 신약학자의 예로는, Schnelle, 앞의 책 (2009), 특히 25-40을 참조 바람.

57) Francis J. Moloney, “Telling God’s Story: The Fourth Gospel,” in *The Forgotten God*, 109-22.

58) Jack Dean Kingsbury, “‘God’ within the Narrative World of Mark,” in *The Forgotten God*, 75-89.

59) 장동수, “갈라디아서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47집 (2011년 봄): 35-54.

5.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 등도 첨가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와 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재정의 되는 구약과 율법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과 영역 등이다.⁶⁰⁾ 하지만 신약에서 구약과의 불연속 보다는 연속성의 강조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비교. 히 1:1-2).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Deo docetur, Deum docet, ad Deum ducit)이라는 어구를 인용하며 지난 세기 중엽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을 집필하였던 성경학자와⁶¹⁾ 지난 세기 말의 구약학자,⁶²⁾ 그리고 최근의 신약 학자가⁶³⁾ 보여 주었던 선례처럼, 한국 신구약 학계에서도 신구약을 통합하는 성서 신학 교과서가 저술 될 필요도 있다.

IV. 결론과 제안

1. 신약 신학(New Testament Theology)을 연구하고 교수함에 있어서 최대 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당연하고 중요하다. 한국 신약 학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약의 각 책에 대한 연구서뿐만 아니라 신약 신학 교과서도 출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 신약 연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조는 물

60) Thompson, *The God of the Gospel of John*, 3, 5.

61)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v; Geerhardus Vos, 『성경 신학』,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7 참조.

62) Childs, *Biblical Theology*.

63) 각주 15번 참조.

론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통치)에 대한 강조가 복원되어야 한다. 기독교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 등의 신학적인 주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일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강조한 나머지 신약과 구약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연속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론에 너무 많은 하중을 견디게 하는 일은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4. 신약의 저자들은 초대교회의 구약 성경이었던 LXX으로 구약을 접하고 인용하였고, 또한 그들은 LXX의 어휘나 구절뿐만 아니라 신학과 문법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약 연구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게 LXX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5. 이렇듯 신약과 구약의 통합연구뿐만이 아니라 성서신학과 역사신학, 조직신학 등의 이론 신학과와의 학제 간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서신학을 위시한 이론 신학이 실천 신학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참고자료

1. 단행본

Barclay, William. *The Plain Man Looks at the Apostles' Creed*. Glasgow: Collins, 1967.

_____. 「바울의 인간과 사상」. 서기산 역. 서울: 교문사, 1974.

Beale, G. K.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_____. *Handbook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 Exegesis and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 Beker, J. Christiann. *Paul the Apostle: 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1980.
- Bultmann, Rudolf.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I*. Translated by K. Grobe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55.
- _____. 「신약성서 신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Caird, G. B. *New Testament Theology*. Edited by L. D. Hurst.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Carraway, George. *Christ Is God Over All: Romans 9:5 in the Context of Romans 9-11*. London: Bloomsbury, 2013.
- Childs, Brevard 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Philadelphia: Fortress, 1992.
- Conzelmann, Hans. *An Outline of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John Bowden. New York: Harper & Row, 1969.
- _____. *The Theology of St. Luke*. 2d ed. Translated by Geoffrey Buswell. New York: Harper & Row, 1961.
- Cullmann, Oscar.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Shirley C. Guthrie and Charles A. M. Hall. London: SCM Press, 1959, 1983.
- Dahl, Nils Alstrup. *Jesus The Christ: The Historical Origins of Christological Doctr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Dalman, Gustaf.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Translated by D. M. Kay. Edinburgh: T. & T. Clark, 1909.
- Das, A. Andrew, and Frank J. Matera, eds. *The Forgotten God: Perspectives in Biblical The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J. Achtemeier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y-fifth Birth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Dunn, James D. G. *New Testament Theology: An Introduction*. Library of Bibl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 Ehrman, Bart D.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The Effect of Early Christological Controversies on the Text of the New*

-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Fitzmyer, Joseph A. *Paul and His Theology: A Brief Sketch*. Englewood: Prentice-Hall, 1989.
- _____. “κύριος, ου, ό.”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2. Edited by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Grand Rapids: Eerdmans, 1990.
- Grant, Frederick C.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 Guthrie, Donald. 『신약 신학』. 정원태, 김근수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Harvey, Bruce J. *YHWH ELOHIM: A Survey of Occurrences in the Leningrad Codex and their Corresponding Septuagintal Renderings*. London: T. & T. Clark, 2011.
- Hurtado, Larry W. *God in New Testament Theology*. Library of Bibl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 Jeremias, Joachim.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Translated by John Bowd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 Keck, Leander E. “Toward the Renewal of New Testament Theology.” *New Testament Studies*. 32 (1986): 362-377.
- Ladd, G. E. 『신약 성서 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Law, Timothy Michael. *When God Spoke Greek: The Septuagint and the Making of the Christian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McLay, R. Timothy. *The Use of the Septuagint in New Testament Research*. Grand Rapids: Eerdmans, 2003.
- Neyrey, Jerome H. *Render to God: New Testament Understandings of the Div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Popkes, W. “δῆ.”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ume 1. Edited by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Grand Rapids: Eerdmans, 1990.
- Rein, Gerhard, ed. *A New Look at the Apostles' Creed*. Translated by David LeFort.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9.

- Rowland, Christopher. *The Open Heaven: A Study of Apocalyptic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2)2002.
- Russell, D. S.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AD 100*.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77.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ume II.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7. 1919.
- Schnelle, Udo.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M. Eugene Bor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_____. *Apostle Paul: His Life and Theology*. Translated by M. Eugene Bor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Schreiner, Thomas R. *The King in His Beauty: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_____. 「신약성서신학」. 임범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Sittser, Gerald. 「하나님의 은혜」. 윤종석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 Thompson, Marianne Meye. *The God of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1.
- _____. *The Promise of the Father: Jesus and God in the New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1983.
- _____. 「성경 신학」.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Zerwick, Maximilian. *Biblical Greek*. 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

2. 정기간행물

- 장동수. “신적 수동태 구절 소고.” 『성경원문연구』, 7호 (2000년 8월): 117-148.
- _____. “신약 성서의 신적 δ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31집 (2003년 봄):

33-58.

- _____. “목회서신의 기독교론.” 『복음과 실천』, 45집 (2010년 봄): 61-84.
- _____. “갈라디아서서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47집 (2011년 봄): 35-54.
- _____. “신약 성서에서의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인용과 해석.” 『복음과 실천』, 57집 (2016년 봄): 37-64.